

# 조선시대 지방문학의 문헌분석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용 방안

—전라남도 완도군의 완도(체도)를 중심으로

김세호\*

<차례>

1. 서론
2. 역사기록과 유적의 활용: 상왕봉(象王峰)과 관음암(觀音庵)
3. 역사기록에 근거한 복원사업: 황장목 봉산지의 소나무 숲
4. 옛길의 회복: 정규영의 『완도기행』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체도)의 문헌분석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완도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여러 문화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대에 개발된 곳이 주를 이룬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완도의 문화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남아 전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 지방문학의 기록을 통한 문헌분석을 시도하여 완도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완도에는 상왕봉(象王峰)과 관음암(觀音庵) 등의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상왕봉을 향하는 등산로에 위치해 완도의 역사를 공유하는 명승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완도는 황장목(黃腸木)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봉산으로 기능했다. 현재 완도에는 소나무 군락지가 사라진 상황으로 이를 복원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정규영(鄭圭榮)의 『완도기행』은 완도 유람을 연작시로 읊은 작품이다. 시문의 분석을 통해 완도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의 명소를 회복할 수 있고 이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완도군은 도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주로 유배지 등으로 인식되었고 공도정책으로 인해 역사 속 문헌기록은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문헌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이목을 끌었던 명승이 다수 존재했음이 드러났고 이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함이 확인되었다. 이상은 완도군이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전국 어느 곳이든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결정된다. 이는 오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자연적 환경에 따른 지역적 특색을 드러낼 수 있어 의미가 깊다.

상왕봉, 관음암, 황장목, 정규영, 유람

## 1. 서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유의 색깔을 내세워 지역문화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구축되어 널리 홍보되고 있고 각 지자체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를 안내하는 중이다. 문화관광 콘텐츠의 대부분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부터 축적된 결과에 기인한다. 그러나 자취가 보존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니, 이는 기록이 남아 전함에도 이를 활용할 만큼의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저마다 지역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남아 전한다. 이는 인문지리서뿐만 아니라 여러 문인들의 개인문집에도 남아 있어 과거의 문화유산을 추적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문헌의 기록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오며 변개의 가능성이 적어 신빙성이 클뿐더러 문화재의 복원이나 유람의 재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 사업으로 활용하기에 대단히 유용하고 이러한 가능성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적이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궁한 가능성을 담보한다.<sup>1)</sup>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지방문학의 기록을 통한 문헌분석을 시도했다. 대상은 전라남도 완도군의 완도(체도)이다.<sup>2)</sup> 완도군은 여러 도서로 이루어져 섬이라는 특징적인 매력이 있지만, 주요 문화관광 콘텐츠가 여러 섬들에 산재되어 이동에 다소 번거로움을 요구한다. 결국 완도를 거점으로 유람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객을 완도군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완도의 콘텐츠를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할 만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감지되는 시점이다.

조선시대 완도군의 도서지역은 사대부가 기피하는 지역으로 여겨졌다. 완도군에 속한 신지도와 고금도 등은 대표적인 귀양지였다. 이로 인해 누군가를 귀양 보냈다는 기사는 방대하게 발견되지만 명승과 관련된 문화사의 기록은 전무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곳에도 사람이 살았고 생각보다 많은 기록이 남아 전한다. 여기서는 완도의 명승과 유람에 주목했다. 크게 세 가지를 선별하고 하나의 장절을 할애해 논지를 전개했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고증과 함께 지방문학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1) 이러한 연구의 시각과 방향이 제기된 이후 문헌분석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용 사례 및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근래에는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종목,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45호, 한민족어문학회, 2004, 39~56쪽 등 참조)

2) 완도군은 완도(체도)를 중심으로 동쪽에 신지도, 고금도, 조약도, 생일도, 평일도, 금당도, 동남쪽에 대모도, 청산도, 여서도, 서남쪽에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 등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완도(체도)는 완도군 가운데 완도군청이 자리한 섬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서는 이하 완도(체도)는 ‘완도’로 적었음을 밝힌다.

## 2. 역사기록과 유적의 활용

### : 상왕봉(象王峰)과 관음암(觀音庵)

완도의 역사는 통일신라시대 장보고(張保臯, ?~849)와 정년(鄭年)에게서 시작된다. 장보고는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해 중국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하며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장군이고, 정년은 그를 따랐던 무장이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통해 위상을 떨쳤고 그 이름은 중국에까지 전해졌지만 이후 역모죄에 몰려 죽임을 당했다. 청해진은 장보고 사후 해체되었고 이곳의 백성들은 벽골군(碧骨郡)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장보고의 자취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이후 완도는 청해진으로 대변되며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완도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역사의 무대로 탈바꿈한다. 이는 고려시대 정언(正言)을 지낸 이영(李穎, ?~1278)에게서 비롯되었다.<sup>3)</sup> 이영은 당시 완도로 귀양을 오게 되었는데 그의 숙부였던 승려 혜일(慧日)이 함께 따라와 섬으로 들어가서 절을 세우고 살았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섬이란 선산도(仙山島)로 오늘날의 청산도(靑山島)를 가리킨다. 이때 혜일은 청산도로 들어가기 전 잠시 완도에 정착했고 법화암(法華庵)을 경영한 뒤 골짜기를 중심으로 명승을 취해 새로운 이름들을 명명했다.

혜일이 완도에 머문 시간을 길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자취는 완도의 명승으로 기억되었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전국의 명승을 정리하며 완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 이영이 어떠한 일로 완도에 귀양을 오게 된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고려사』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열전에 빼어난 인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이영은 『고려사』에 따르면 충렬왕 3년(1277)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으나 열전에서는 충렬왕 4년(1278)에 졸했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高麗史』 권28 世家 권28, 『忠烈王 3年 11월』; 『고려사』 권106 列傳 권19 諸臣, 『李穎』)

청해진은 조선 해남현 서쪽 바다 40리에 있고 둘레가 290리이다. 고려에 서는 완도라고 하였고 조선에서는 가리진(加里津)이라 부른다. 상왕봉(象王峯)·사현봉대(射峴烽臺)·법화암(法華菴)·천연대(天然臺)·전석계(全石溪) 등 여러 명승이 있고 불목(佛目)·청암(靑巖)·목모도(木茅島)·도암(道巖)이 그곳의 마을이다. 정덕(正德) 신사년(1521) 조선은 왜구의 요충지라 여겨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설치하고 섬 가운데 땅에 진을 두었다. 석류(石榴)·금굴(金橘)·비자(檉子)·복령(茯苓)·맛조개(竹蛤)가 많다.<sup>4)</sup>

성해응이 우리나라의 고적을 정리하며 완도군을 기록한 내용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사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완도군의 명승, 마을, 특산물 등의 대략을 상세하게 기록했다.<sup>5)</sup> 마을의 경우를 보면 불목리와 도암리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고<sup>6)</sup> 특산품의 경우는 석류와 금굴 등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어 과거의 문화가 일부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이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완도의 명승에 대한 부분이다. 성해

4)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권63, 『小華古蹟』: 淸海鎮在朝鮮海南縣西洋四十里, 周二百九十里. 高麗謂莞島, 朝鮮謂加里津, 有象王峯·射峴烽臺·法華菴·天然臺·全石溪諸名勝, 佛目·靑巖·木茅島·道巖, 其坊曲也. 正德辛巳, 朝鮮以倭寇要衝, 設兵馬僉節制使, 鎮島中地. 多石榴金橘檉子茯苓竹蛤.

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全羅道, 『康津縣』.

6) 기존에 이 문장을 “부처님 눈으로 보면 푸른 바위, 모과 섬, 도인바위 등이 방방곡곡에 있다”라고 번역한 사례도 있지만 방곡(坊曲)은 마을을 의미하니 제고의 여지가 있다. (마광남, 『기고: 각안대사(覺岸大師)와 상왕산(象王山)』, 완도군민신문 93호, 2017년 9월 1일자 기사) 불목의 지명을 통해 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7)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완도 특산물 다시마와 알긴산을 소재로 ‘알긴그레이트’이란 해조음료를 개발해 글로벌화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알긴그레이트는 석류맛과 유자맛으로 출시되었는데 성해응의 글에서 지목한 석류와 유자(금굴)를 그대로 활용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나명옥 기자, 『식품저널』, 『“해조류, 글로벌 시장 공략하려면 해조류 HMR 개발·유통망 확보해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조류 원료 건강기능식품 개발 중, 2018년 6월 15일자 기사 참조)

응은 상왕봉(象王峯)·사현봉대(射峴烽臺)·법화암·천연대(天然臺)·전석계(全石溪)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현봉대를 제외하면 모두가 승려 혜일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sup>8)</sup>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모두 법화암이 경영된 골짜기를 따라 위치한 명승이라고 하였다.<sup>9)</sup> 이는 상왕봉의 경우에만 집중해도 자명하게 드러난다. 상왕봉은 완도군 중앙에 위치한 봉우리로 ‘상왕(象王)’은 ‘상중지왕(象中之王)’에서 취한 말이니 불교에서 부처를 가리킨다.<sup>10)</sup> 사실상 혜일에게서 비롯된 명승임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 『동국여지승람』의 법화암 기사에는 혜일의 시가 소개되어 있다. 전석계·천연대·상왕봉을 두고 지은 것으로 상왕봉을 노래한 시는 다음과 같다.

蒼翠繁群木,	푸릇푸릇 우거진 무리지은 나무들
雲霞閱幾年.	구름과 안개 몇 해 동안 보았는가.
月升佛毫朗,	달 떠오르자 불호(佛毫) 밝아지고
塔轉象頭旋.	탑을 도니 코끼리 머리도 돈다네.

8) 사현봉대는 완도군 출신 송징(宋徵)이란 인물과 관련된 유적이다. 송징은 고려시대 완도사람으로 무예가 남들보다 빼어났는데 활을 쏘면 60리 밖까지 날아갔다고 한다. 송징이 활을 쏘았던 반석(盤石)에 흔적이 남아 사현이라 부른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7 전라도, 『강진현(康津縣)』 <고적> 중 사현(射峴) 참조)

9) 현재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전라남도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된 완도법화사지가 있다. 이는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다는 장도(將島)와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유물발굴 조사 등을 진행해 통일신라시대 장보고의 유적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성해응 등이 말한 법화암과 같은 곳을 가리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완도법화사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형태·조남철·정광용, 『완도(莞島) 법화사지(法華寺址) 동종(銅鐘)의 과학적 분석 및 산지연구』, 『호남고고학보』 25권, 호남고고학회, 2007, 131~148쪽)

10) 상왕봉은 한동안 상황봉으로 불렸으나 일제강점기 개명된 사실이 밝혀져 최근 다시 상왕봉으로 개명되었다.

澗水宜眞偈,      시냇물 소리에 계승 읊기 알맞고  
 巖花畝梵筵.      바위 꽃 범연(梵筵)에 피어났구나.  
 佳名自圓妙,      아름다운 이름 원묘(圓妙)부터이니  
 勿謂浪相傳.      부질없이 전한다고 말하지 말게나.<sup>11)</sup>

완도의 법화암에 머물던 혜일이 상왕봉을 두고 지은 시이다. 먼저 수련(首聯)에서 상왕봉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 사실을 말하며 시문을 시작했다. 함련(頷聯)에서는 법화암과 어우러진 상왕봉을 그려냈는데, 불호(佛毫)는 부처의 사리에서 나오는 광채를 가리키니 법화암에 사리탑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요, 탑을 빙빙 돌자 상왕봉도 함께 돈다고 하였으니 역시 법화암에 탑이 존재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경련(頸聯)은 상왕봉 일대에 경영한 전석계 등의 명승을 예찬한 구절로 보인다. 혜일은 미련(尾聯)에서 상왕봉의 이름이 원묘(圓妙) 때부터 만들어졌음을 말하며 이미 유서 깊은 공간임을 자부했다.

이상의 시에는 새로운 단서가 하나 확인된다. 바로 상왕봉의 이름에 대한 기원이다. 원묘는 고려시대 승려 요세(了世)를 가리키고 역사에서는 천태종(天台宗)의 중흥을 이룬 인물로 유명하다. 전라남도 강진군 만덕산(萬德山)에 있던 백련사(白蓮社)를 중수한 뒤 백련결사운동을 주도했거니와, 그의 자취가 완도에까지 미쳤던 모양이다. 혜일은 상왕봉을 읊으며 그 이름이 원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말했으니 어쩌면 완도의 불교 유적은 오늘날 전하는 기록보다 오래된 것인지 모른다.

이러한 완도의 불교유적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기록에 널리 회자되는 곳은 바로 관음굴(觀音窟)이다. 강진에 귀양 왔던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완도를 유람하며 관음굴에 대해 예찬했던 기사가 널리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7 전라도, 「강진현」: <고적> 중 법화암.

알려져 있다. 정약용은 훗날 이재의(李載毅)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 토론을 주고받았고 이때 완도의 관음굴에서 만나 세상을 잊고 겸허한 마음으로 토론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sup>12)</sup> 관음굴은 지금도 ‘완도관음사지’라는 지명으로 남아 유허가 전한다.<sup>13)</sup>

이러한 관음암은 정약용 사후 제자 황상(黃裳, 1788~1863)에 의해 다시 조명되었다. 황상은 스승의 행적을 떠올리며 관음굴을 유람했고 이때의 유람을 기문으로 남겼다.<sup>14)</sup>

관음암에 오르니 돌길과 바위길이 가로로 비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데 덩굴과 등나무가 장막처럼 가로막고 울창하게 우겨져 하늘을 가렸다. 소나무·삼나무·황칠·뽕나무가 백 길로 가지를 드리우니 이 산이 바로 국가에서 황장으로 봉한 곳이다. (중략) 뒤로 백 길의 벽이 서 있는 곳은 성스러운 자리가 편안하고 고요한데 돌로 된 관음이 또한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라, 비록 귀로 알지(耳識) 않아도 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이 관음암이라 한 것이다.<sup>15)</sup>

황상이 정약용이 찾았던 관음굴을 다시 찾은 뒤 남긴 기문의 일부이다.

12)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9, 『答李汝弘』: 今之所大願者, 必兩人相携入莞島之觀音窟, 前臨滄海, 背負松風, 收視息聽, 絕塵超世, 使虛室生白.

13) 근래 『완도신문』에서 관음사 특집으로 정약용의 편지글을 소개했다. 박주성 기자, 「정약용, 청정한 관음사 빗대 이재의를 놀리다」 [관음사 특집]범해선사·정약용 등 다수 명사를 찾았던 완도 명소, 『완도신문』, 2017년 5월 29일자.

14) 황상의 「유관음암기」를 비롯한 관음암의 자료는 완도군청 이주승 학예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

15) 黃裳, 『巨園遺稿』 권5, 『觀音菴記』: 上觀音菴, 石經巖路, 橫斜反正, 蘿幕藤帳, 鬱蔽蔽天, 松樹黃漆, 桑柘抽幹百章, 此山乃國家黃腸所封也. (중략) 後有百丈壁立者, 聖位安靜, 石身觀音, 又復出世, 雖不以耳識直可聞之也, 故古人所以觀音巖者也.



제목에 『유관음암기(遊觀音庵記)』라 하였으니 지금은 암자가 사라져 관음사지라는 이름만 전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관음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관음암에 오른 과정의 일부로 국가에서 관리하던 봉산을 지나 관음암에 오른 듯한데, 관음암에 올라서는 관음이 ‘소리를 본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임을 함께 설명했다. 조선 후기 완도의 모습과 관음암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인용문에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황상의 기문에는 이밖에도 많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앞선 내용에서 고려 정언 이영과 혜일의 고사를 말하고 이후 정약용이 그 시들을 모두 모아 암자에 걸어놓았다고 옛일을 증명했다. 명승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자 혜일이 관음암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음을 짐작하게 한다.<sup>16)</sup> 한편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천연대의 존재도 밝혔다. 관음암에서 젓 같은 물이 방울방울 흘러나오고 오른쪽으로 꺾어져 올라가면 천연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천연대는 혜일이 읊은 시가 전하는 곳으로 관음암과 혜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기록이다.<sup>17)</sup> 어쩌면 관음암은 혜일이 과거 완도에 창건했다는 범화사의 전신이었는지 모른다.

조선시대 완도는 혜일에 의해 경영된 명소들이 생겨나며 혜일 사후에도 그의 자취가 꾸준히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관음암이 존재했던 것처럼 사찰이 존속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은 완도에 살던 한 승려에게 시를 지어 건넨 적이

16) 黃裳, 위의 글: 曾按康津縣志, 高麗正言李穎謫莞島, 其叔慧日禪師, 隨而訪之, 愛慕其山水, 建中菴, 有象王峰·天然臺·全石溪詩. 我茶山丁夫, 采其諸詩, 縣於菴顏, 裊回久之.

17) 黃裳, 위의 글: 乳水從巖罅流出, 可供十房然, 霖而不溢, 雖早不竭, 色味清粹, 工部所謂香美, 勝牛乳者, 能如此否乎? 右折而上, 數箭道有天然臺, 其高比觀音巖, 挾可一簫, 幽閒窈窕, 雅順可則如將脫入潤物, 莫知其所由然矣.

있는데, 그가 있는 곳이 바다 한가운데 신선의 섬으로 인간세상과 격절된 곳임을 읊었다.<sup>18)</sup> 완도의 사찰이 한순간의 역사에 그치지 않음을 증언하는 기록이다.

혜일과 함께 전승된 완도의 불교 유적은 유서 깊은 명승이자 역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유용하다. 굳이 건물을 복원하지 않더라도 자취를 내세워 문화관광 콘텐츠로 소개할 수 있다. 특히 이상의 공간들은 모두 상왕봉을 향하는 등산로에 위치하니 정상에 올라 주위를 조망하는 등산의 기쁨과 함께 완도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혜일의 시문이 전하고 정약용이 예찬한 곳이며 황상의 기문이 있기에 역사적 의미는 깊다고 해도 충분하다. 이는 역사기록을 통해 유적을 활용하는 하나의 실례이다.

### 3. 역사기록에 근거한 복원사업

#### : 황장목 봉산지의 소나무 숲

조선시대 국가에서 인식한 완도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장보고의 청해진 이후 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영된 수영(水營)이다. 조선은 완도 가리포(加里浦)에 가리진(加里鎭)을 설치하고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라는 별도의 무관직을 임명해 해안의 방비를 담당하게 했다.<sup>19)</sup>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필요한 소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봉산(封山)을 설치한 것이다. 당시 궁궐이나 선박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질

18) 林億齡, 『石川詩集』 권2, 『贈正上人[居莞島]』.

19) 이는 왜구의 침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정현, 『莞島와 倭寇: 조선시대(朝鮮時代)를 중심(中心)으로』, 『호남학연구』 4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70, 203~211쪽)

좋은 소나무가 필요했고 소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에 완도는 나라에서 사용할 소나무의 대표적인 산지로 각광받았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후자의 사례이다. 조선시대 완도의 소나무는 대단한 위상을 자랑했고 이러한 기원은 조선 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 대부터 이미 소나무를 중시한 정황이 보이는데 성종 대에 이르면 우리나라 최고의 산지로 자리매김한 사실을 볼 수 있다.<sup>20)</sup> 완도의 소나무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지역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sup>21)</sup> 광주 회경루(喜慶樓)가 화재로 소실되자 1531년(중종 26) 광주목사(光州牧使) 신한(申瀚, 1482~1543)이 이를 중수했고 심언광(沈彦光)은 이를 기문으로 지으며 완도의 목재를 가져다 썼다고 했다.<sup>22)</sup>

조선시대 봉산의 규제는 상당히 엄격해 완도의 소나무는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고 조선 중기에 이르러 상당한 규모의 산림을 자랑했다. 이때 완도를 유람한 장유(張維, 1587~1638)의 시에 주목할 만하다.

地盡溟波外,	땅이 끝나고 어두운 물결 건너니
山如蜀道危.	산길 촉도(蜀道)같이 위태롭구나.
深冬多碧樹,	한겨울에도 푸른 나무 가득하여
亭午失陽曦.	정오에도 햇빛을 볼 수가 없대네.
大壑龍蛇橫,	큰 골짜기에는 용과 뱀 가로지르고
窮林虎豹飢.	깊은 숲에는 호랑이와 표범 굶주렸지.

20) 『세종실록』 세종 30년(1448) 8월 27일 1번째 기사; 『성종실록』 성종 5년(1474) 10월 28일 4번째 기사.

21) 산림청 안내문에 따르면 소나무는 동북형·금강형·중남부평지형·위봉형·안강형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이는 같은 품종일지라도 기후와 지형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성장함을 말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완도군 일대가 소나무 재배를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이 구비되었음을 방증한다.

22) 沈彦光, 『漁村集』 권9, 『喜慶樓記』.

惟應木客在,      오로지 응당 나무꾼은 있으리니  
見我獨行時.      내가 홀로 지나가는 것 바라보리라.<sup>23)</sup>

장유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이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1624년(인조 2) 1월 전라남도 암행어사로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때 완도를 방문하고 지은 시로 추정된다.

장유는 완도에 상륙한 뒤 가리포로 향하는 길을 읊었다. 수련에서 산길이 중국 측나라 땅과 같이 험하다며 완도의 산길을 묘사했고, 함련에서 겨울인데도 푸른 나무가 우거져 햇빛을 볼 수 없을 지경이라 하였다. 소나무가 우거졌음을 말한 것이 틀림없다. 경련은 깊은 숲이기에 두려워할 만한 짐승들이 많으리라 말한 것이요, 미련은 그래도 나무가 많으니 나무꾼은 있을 것이라며 시를 마무리했다. 결국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했던 소나무 봉산지의 특징을 그려낸 작품이라 하겠다.

이처럼 완도의 소나무는 국가적으로 중시되며 엄격한 통제 하에 관리되었고 국왕 또한 이에 대한 관심에 소홀하지 않았다. 광해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광해군은 변산과 완도에 재목이 많았지만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은 뒤로 국법이 해이해져 남벌이 자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몇 해 지나서는 변산과 완도의 소나무를 직접 관리하며 재목으로 쓸 만한 나무가 1만여 그루에 이른다는 사실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sup>24)</sup> 소나무가 국가의 운영에 중요했음은 당연했던 것이고 완도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지였음을 증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산의 정책에는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 소나무의 엄격

23) 張維, 『谿谷集』 권27, 『行莞島中』.

24)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1617) 5월 19일; 광해군 14년(1622) 5월 11일 9번째 기사.

한 보호가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상소에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성들이 해도(海島)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개 사람은 많으나 땅이 좁아서 물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러나 소나무 숲이 있으면 마침내 감히 엿보지 못하고 잡목이 있는 남은 땅은 밭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람 이는 물결을 출입해 물에 있던 것들을 잡으며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팔아 입에 풀칠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백성들의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욱 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엄격한 법령으로 모두 내몰아 쫓으시면 이들은 어느 곳에 의지하고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이른바 그 목구멍을 끊는다는 것입니다.<sup>25)</sup>

윤선도의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해옹(海翁)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러 강화도로 가던 중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내려가 보길도에 정착하여 원림을 경영한 인물이다. 보길도는 완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윤선도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완도 일대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상은 완도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을 진달한 상소의 일부이다.

당시 조정에서 완도 일대 도서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는 소나무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자행된 결과였다. 이에 윤선도는 완도의 백성들이 소나무를 해치지 않을뿐더러 이곳에 사는

25) 尹善道, 『孤山遺稿』 권2, 「時弊四條疏[宣文大王六年乙未十月, 公在海南時]」: 民之所以居於海島者何也? 蓋人多地窄, 陸無資生之路故也. (중략) 然而松林所在, 意不敢窺, 雜樹餘地, 田不可多, 故出沒風濤, 拮据水物, 朝營暮販, 以助餬口, 此正所謂斯民之增勞而可哀者, 而今者嚴法刻令, 一切驅逐, 則當依何處? 當食何物? 是誠所謂絕其喉者也,

사람들은 목구멍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강하게 변론했다. 윤선도가 이처럼 완도의 사정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이유는 보길도에 살았던 데 기인하지만, 실제 윤선도 자신도 병자호란 이후 보길도에 기거한 사실이 문제가 되며 소나무 문제와 마주한 적이 있었다. 보길도 별서를 경영하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소나무를 베어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윤선도와 같은 명사마저도 소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알게 한다.

실제 이러한 소나무에 대한 보호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대부에게도 적용되었다. 효종 대에 있었던 민안도(閔安道) 별서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전라남도어사를 통해 어떤 사대부가 완도에 전장(田莊)을 설치했다는 사안이 보고되었고 효종은 이러한 보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행해지지 않자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 평안도관찰사 이방(李昉)이 전라도관찰사를 지내던 시절 사돈집 아들 민안도를 수영에 보내 전장을 설치하게 했는데 수사(水使) 윤천뢰(尹天賚)가 배후에 있어 가리포첨사였던 조상주(趙相周)도 어찌할 수 없던 상황임이 드러났다.<sup>26)</sup> 결국 이방은 파직되고 관련자는 추고를 당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완도의 소나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조선 후기에 완도의 소나무는 국가의 보호 아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널리 활용되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호남 지역에서 완도 소나무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완도는 황장(黃腸)의 봉산(封山)이다. 첨사가 지키고 현감이 관리하며 수사가 엄금하고 감사가 영을 내린다. 죄가 작을 때는 곤장을 치니 그 비용이

26) 『효종실록』 효종 10년(1659) 3월 22일 1번째 기사; 3월 23일 3번째 기사; 윤3월 8일 2번째 기사.

5천이고, 죄가 클 때는 장형을 행하니 그 벌금이 4천이다. 그 비용이 수만이 들지만 완도를 두른 수백 리의 땅에서는 궁실(宮室)에 완도만 쳐다보고, 선박에 완도만 쳐다보며 관곽에 완도만 쳐다보고 농기구에 완도만 쳐다본다. 소금하는 자도 완도만 보고 도기 굽는 자도 완도만 보며 땀감을 모으거나 솥을 굽는 자도 완도만 바라본다. 무릇 땅에 깔거나 물에 띄우는 것, 아궁이에 태우거나 화로에 사르는 것 가운데 하나도 완도의 나무가 아닌 것이 없다.<sup>27)</sup>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가운데 봉산 관리의 중요성을 논한 기사이다. 본래 내용은 황장의 봉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지만 이를 설명하고자 완도 소나무의 실정을 예시로 들어 거론했다. 전라남도 일대의 모든 지역이 완도의 소나무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땀감에서부터 건물이나 전선을 건축하는 데 소나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사실상 지역경제의 기반이 소나무 하나에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완도의 봉산지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이다.

이밖에도 완도 소나무 산지의 규모를 보여주는 기사가 더 확인된다. 완도는 여름이면 종종 태풍이 상륙하는 지역이기에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는 풍락송(風落松)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풍락송 가운데에는 좋은 품질의 나무가 많아 이를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논의사항이 되었다. 1792년(정조 16) 기록을 보면, 3,000그루에 가까운 풍락송이 발생했다고 하였는데 완도군의 소나무 숲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sup>28)</sup>

27)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5집 政法集 권26 ○牧民心書 권11 工典六條, 『其有厲禁, 宜謹守之, 其有奸弊, 宜細察之』: 莞島者, 黃腸之封也. 僉使守之, 縣監管之, 水使禁之, 監司領之, 小則決棍, 其費五千, 大則訊杖, 其罰四千, 其費數萬, 然環莞島數百里之地, 宮室仰莞島, 舟楫仰莞島, 棺槨仰莞島, 耒耜仰莞島, 鹽者仰焉, 陶者仰焉, 薪者炭者仰焉. 凡鋪于地, 汎乎水, 然乎竈燕乎爐者, 無一而非莞島之木.

조선시대 소나무의 산지는 오랜 세월 동안 저마다 한 번씩 위기를 겪었다. 성종 대에 변산의 소나무가 없어지자 완도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강화도 소나무가 없을 때에도 완도의 소나무를 옮겨 심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완도의 소나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언제나 풍성하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며 굳건하게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 조선시대 내내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며 최고의 소나무를 공급했던 가장 대표적인 산지였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완도의 소나무 군락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완도수목원 등이 다양한 식물의 위상을 자랑하고 방풍림 등이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나무에 대한 홍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소나무들이 온전하게 남아 위상을 떨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울산의 경우는 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성을 떨치지 못했지만 오늘날 소나무 군락지로 이름을 알리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완도군에 소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조건에 따른다. 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의 유산을 생각한다면 소나무 봉산지의 명성을 복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사안이다. 소나무 숲은 휴양림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삼림욕을 위한 캠프촌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완도의 새로운 상징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과거부터 비롯된 소산이요 미래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문헌이 있고 오랜 역사가 증언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완도의 황장지를 복원하고 활용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는 역사기록에 근거한 복원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28)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9월 5일 47번째 기사.



#### 4. 옛길의 회복: 정규영의 「완도기행」

오늘날 완도군에 속한 도서지역은 대부분 귀양지로 인식되었다. 신지도(薪智島)가 그러했고 고금도(古今島)가 그러했다. 완도(체도) 역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귀양지로 인식되었지만 조선시대로 들어서며 남다른 섬으로 탈바꿈했다. 아마도 소나무의 봉산으로 공표되며 버려진 땅이 아닌 중요한 땅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작용한 듯하다. 장유와 구봉령 등이 유람시를 남겼고 민안도가 별서를 경영하려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sup>29)</sup>

이러한 현실 속에 구한말 완도를 유람한 연작시가 나타났다. 오늘날과 같이 아름다운 명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이다. 이는 정규영(鄭奎榮, 1857~1932)의 문집에 전하니 『완도기행』이란 이름으로 모두 28수의 연작시가 창작되었다.

정규영의 본관은 진양(晉陽), 자는 치형(致亨), 호는 한재(韓齋)이다. 정익헌(鄭益獻)의 증손이자 정재환(鄭載煥)의 손자로, 부친 정원휘(鄭元暉)와 모친 하진흙(河鎭洽)의 딸 진양하씨(晉陽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상남도 하동군 대현리(大峴里) 출신 문인이다. 정규영은 1907년(고종 44) 무렵 완도를 유람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배를 띄워 출발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노량과 여수를 지나 완도에 도착했다. 완도의 대산(大山: 큰산)에 머물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 달간 섬 전체를 유람한 것으로 추정된다. 몇몇 시를 통해 『완도기행』의 특징을 살펴본다.

『완도기행』에는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작은 마을을 묘사한 시가 있다. 장좌동(長佐洞)을 지나며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29) 具鳳齡, 『栢潭集』 권5, 「莞島紀行」.

南遊倦客帶斜陽，	남쪽 유람하는 게으른 나그네 석양빛 띠었고
紅樹蒼松挾路長。	붉은 나무 푸른 소나무 길 곁에서 자라는구나.
桐柏山中招隱侶，	동백산(桐柏山) 안에서 은거할 짝 부르코
桃花源裏見漁郎。	도화원(桃花源) 속에서 어부를 만났다네.
清溪曲曲鳴璆響，	맑은 시내 굽이굽이 옥구슬 소리 올리고
白石重重鋪雪光。	흰 바위들은 겹겹이 눈빛처럼 깔려 있다.
奇絕無因難移畫，	몹시 기이해 웬지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
居人爲說小金剛。	마을 사람 말하기를 소금강이라고 하네. <sup>30)</sup>

장좌동은 오늘날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를 가리킨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경영했다는 장도를 마주한 곳이다. 다만 정규영이 묘사한 장좌동의 풍경은 내륙 쪽 상왕봉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를 가리킨 듯하다. 당시 이곳 골짜기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모양이다. 정규영은 이곳을 진나라 갈홍(葛洪)이 명산을 두루 유람하다 연단할 장소를 찾아낸 동백산과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도화원에 비유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소금강(小金剛)이라 자부한 면모도 보인다. 오늘날 장좌리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시이다.

이처럼 정규영의 시에는 작은 마을을 두고 읊은 작품들이 있다. 교촌(校村) 죽청리(竹靑里)를 지나며 지은 시는 오늘날 완도읍 죽청리에서 지은 것으로 완도향교가 아직도 전하는 공간이다.<sup>31)</sup> 정규영도 이때 죽청리를 지나며 완도향교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향교 건물은 새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가을빛이 무르익었지만 이곳에서 마을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 완도향교는 1897년 창건되었고 1903년 강학공간을 세웠다고 한다. 한적했던 향교의 운치 있는 모습을 추억하게 만든다.

30) 鄭奎榮, 『韓齋集』 권3, 「過長佐洞」.

31) 鄭奎榮, 『韓齋集』 권3, 「過校村竹靑里」.

정규영은 완도를 유람하며 역사 유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은 정약용을 회고하며 지은 시이다.

文章經濟莫如公,	문장과 경제에 있어 공 만한 이 없으니
欽牧新書實用工.	흠휼신서와 목민심서 참으로 학문에 힘썼네.
漢道方隆猶不遇,	한나라의 도 융성했건만 오히려 불우했으니
千秋遺恨賈生同.	천추에 남겨진 한 가의(賈誼)와 같구나. <sup>32)</sup>

정규영은 이 시의 제목에서 정약용이 일찍이 이 섬에 귀양 온 적이 있었다는 세주를 부기한 뒤 시를 지었다. 아마도 관음굴을 유람하며 완도에 자취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이 귀양 와서 지낸 이야기를 섬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건만 오늘날도 이러한 전설이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정규영은 정약용이 빼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불우한 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고 과거 고관들의 시기로 좌천되며 불우했던 중국의 가의(賈誼)에 견주었다.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지닌 위상을 돌아볼 때 완도에 전하는 정약용의 자취는 간과할 수 없는 기록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정규영은 역사적 자취가 어린 곳에도 주목했다. 다른 작품으로 관황묘(關皇廟)를 읊은 시가 보인다.<sup>33)</sup> 관황묘는 중국 삼국시대 명장이었던 관우를 모신 사당이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는 관우를 모신 사당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도 서울에 동악묘(東岳廟)가 남아 있고 완도군 고금도에도 관황묘의 자취가 전한다. 고금도의 관황묘는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이곳에 주둔했던 중국 명나라 장수 진린(陳璘)에 의해 세워졌다고

32) 鄭奎榮, 『韓齋集』 권3, 『有懷丁茶山[公會謫此島]』.

33) 鄭奎榮, 『韓齋集』 권3, 『關皇廟』.

전하는데 이러한 관항묘가 완도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다. 어쩌면 마을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자취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정규영의 시가 전하기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완도기행에는 완도만의 경험을 담은 기록도 전한다.

小島接海南,	작은 섬 해남과 이어졌으니
一葦可抗之.	한 조각 배로 건널 수 있겠네.
世遠皇華路,	세상에 중국 가는 길 멀건만
人仰高山師.	사람들 고산의 스승 우러른다.
淡供同惠飯,	담박한 음식 은혜로운 밥 함께했고
清韻用陶詩.	맑은 시 도잠의 운자 썼지.
何時笠履客,	어느 때 삿갓에 나막신 신은 나그네
喜見放生池.	기쁘게 방생지를 보게 될까. <sup>34)</sup>

정규영이 완도에서 해남을 바라보다가 소식이 해남(하이난)에 유배되어 지은 시를 떠올리며 그 시의 운자를 취해 지은 작품이다. 제목에 “완도에 와서 머무른 지 수십일 동안 아침저녁 마주한 것이 다만 해남의 산천이라 우연히 「자침적해남(子瞻謫海南)」 시를 읊고 이에 그 운자를 따른다”라고 하였다.<sup>35)</sup> 내용은 소식에 대한 생각으로 점철되지만 여기에는 유람의 새로운 단서가 들어 있다. 정규영은 제목에서 완도에 머무른 지 수십 일로 해남을 보았다고 하였다. 해남은 완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

34) 鄭奎榮, 『韓齋集』 권3, 「來留莞島數旬, 朝暮相對者, 只海南山川, 偶吟子瞻謫海南之詩, 仍足其韻」.

35) 소식이 해남으로 귀양갈 때 黃庭堅이 지어준 작품이다. (황정건, 「子瞻謫海南」: 子瞻謫海南, 時宰欲殺之. 飽喫惠州飯, 細和淵明詩. 澎澤千載人, 東坡百世士. 出處雖不同, 氣味乃相似)

니 정규영의 유람이 단지 동남쪽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완도군 동남쪽 대산을 기점으로 삼았지만 완도를 두루 유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규영은 완도의 특색 있는 것들을 간과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완도 주민의 말을 듣고 또한 선인장을 본 뒤에 이를 시로 지은 적이 있다. 이때 제목에서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곳은 춘추노인성이 나타납니다’라고 하고 또한 산 들판에서 동청 자기 화분이 있는데 선인장이 심어져 있어 장난삼아 짓는다”라고 하였다.<sup>36)</sup> 남극노인과 선인장 모두 장수를 상징하고 정규영은 이때 50의 나이에 접어들었기에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던 듯하다. 하지만 완도라는 공간에서 보자면 춘추노인성이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자 오늘날 식물원이 남아 전하듯 선인장이 자라는 곳으로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당시 조선시대 문인들의 남방 도서지역에 대한 특징적인 시각도 엿보인다.

정규영의 완도기행은 지방문학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연작시를 통해 자신의 유람을 정리했고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다만 완도의 규모 때문인지 연작시를 통해 유람의 경로를 알기는 어렵는데 그래도 수십 일을 머물렀다는 구절도 있으니 오랜 시간 한 곳에 정착하며 여러 곳을 유람했다고 하겠다. 완도기행은 완도의 동서 남북 모든 곳을 아우르고 구석구석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여기에 나타난 정보들 가운데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 추후 연구의 가능성 또한 담보한다.

그렇다면 정규영의 완도기행은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완도라는 섬을 유람하는 ‘길’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제주도 올레길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길은 오늘날 문화관광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요

36) 鄭奎榮, 『韓齋集』 권3, 『居人言, 此地春秋老人星出現, 又見山野有冬青磁盆栽仙人掌故戲題』.

소이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여행의 여유를 느낄 수 있고 직접 그 땅을 밟로 밟아 그곳에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완도의 유람길을 구비하고 요소요소에 새로운 정보가 깃든 설명을 가미해 안내한다면 유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과거의 자취를 복원할 수 있고 완도만의 색깔을 담은 자료도 나타나니 유람시의 활용양상은 이보다 더욱 다양하리라 확신한다. 이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실례이다.

## 5. 결론

조선시대 완도군은 도서 지역으로 분류되어 유배지 등으로 인식되는 시각이 다분했다. 공도정책이란 조선의 특수한 방침으로 인해 역사 속 문헌기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상을 통해 기록이 전무하지 않을뿐더러 조선시대 문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몇몇 명승이 존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세 가지 사례에 불과하고 완도 기록의 일부에 국한되지만 지방문학을 활용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데 작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

오늘날 완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장도청해진유적지, 보길도운선도원림, 금당8경,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등이 주요관광지로 소개되어 있다. 모두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들이지만 이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대에 개발된 곳들이 주를 이룬다.<sup>37)</sup>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임에도 역사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는 다소 부족한 감이

37) 이밖에도 완도타워, 완도수목원, 슬로시티청산도, 해신드라마세트장, 어촌민속전시관 등이 소개되고 있지만 역사에 근거한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없지 않다. 이에 문헌기록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콘텐츠의 증가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완도군의 도서지역을 보다 오랜 시간 알차게 유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은 완도군이라는 특수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전국 어느 곳 이든 이러한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 모두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활용의 성패 여부가 달린 상황이다. 문헌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본자료를 구축할 수 있고 문화관광지 복원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근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 환경에 따른 지역적 특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이상의 연구는 단지 문헌분석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헌분석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결국 기록에 그친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역사유적의 복원이나 문화적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타 전공과의 연계를 통한 학제 간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협조 또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요소이다. 다만 문헌분석은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용 방안의 바탕이 되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콘텐츠가 구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항들은 사실상 검토조차 불가능하다. 지방문학이 지닌 중요성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강형태·조남철·정광용, 「완도(莞島) 법화사지(法華寺址) 동종(銅鐘)의 과학적 분석 및 산지연구」, 『호남고고학보』 25권, 호남고고학회, 2007, 131~148쪽.
- 송정현, 「莞島와 倭寇: 조선시대(朝鮮時代)를 중심(中心)으로」, 『호남학연구』 4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70, 203~211쪽.
- 이종묵,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45호, 한민족어문학회, 2004, 39~56쪽.
- 이종묵·안대회 저, 『절해고도에 위리안치하라』, 북스코프, 2011, 368쪽.
- 완도군, 『완도』, 국립나주박물관 완도특별전 도록, 2017, 1~320쪽.



ABSTRACT

Promoting Cultural Tourism Through Local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The Case of Wando Island, South Jeolla Province

Kim, Se-ho

This paper proposes cultural tourism contents usage plan through systematic literary research of Wando Island, South Jeolla Province. Wando County contains many cultural tourist attractions including the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however the majority of locations are developed during modern times. Much of Wando's cultural history can be inferred within Joseon Dynasty literature. Accordingly, this paper ha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ocal literature of the Joseon Dynasty, attempted to discover new cultural tourism contents of Wando.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First, there are many Buddhist historical sites remaining in Wando such as Sangwang-bong and Gwan-eum-am. Secondly, Wando served as a representative private mountain that produced Yellow-hearted Pine. Currently, the pine groves of Wando have disappeared, and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habitat. Third, Kyu-young Jeong's *Wando Journey* is a series of poems recited of a *Wando Journe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em, it is possible to restore the famous locations of Wando and utilize them as cultural tourism contents.

In the Joseon Dynasty, Wando County was classified as an Island Region, and was mainly recognized as an exile; and the Gongdo Policy led to a view that historical records were lacking.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rough literary analysis that there were many scenic spots that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potential to utilize this as cultural tourism contents. The above is just the specific example of Wando, but the success or failure

depends on how data is processed and utilized wherever that may be in the country. This is based on long historical facts and is meaningful because it can reveal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environment.

**Key Words** Sangwang-bong, Gwan-eum-am, Yellow-hearted Pine, Kyu-young Jeong, Journey

논문투고일	: 2018.10.20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